



# “고향으로 절친 아티스트 초대했죠”

‘어떤 날은 그리워져 거품 건어 난 날 나누며  
우린 어느 새 우정의 정원’으로 (최고는 ‘우정의  
정원’으로)

우정이란 무엇일까. 지난달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는 여러 가수들이 모여 저마다 생각하는 ‘우  
정’에 대해 노래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의 이름은 ‘커밍홈 vol.2 친구, 우정의 정  
원’으로. 광주 출신인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호스트가 되어 고향인 광주로 예술인들을 초대  
해 공연을 펼치는 시간이다. 최 씨는 영국 ‘글래스  
톤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  
로부터 총 3차례 공식초청을 받은 싱어송라이터  
로 해외 음악관계자들로부터 ‘조니포크(Joni-  
Folk)’라는 신조어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날 가수 이은철·곽푸른하늘·이일두가 관객  
앞에 나섰다. 약 30여명의 관객들이 거리를 두  
고 띄어앉아 노래를 감상했다. 가수들은 친구와  
의 여행길에서 기자를 기다리며 만든 곡, 친구에  
게 짝사랑 상담을 하는 내용을 담은 곡 등을 무  
대에 올리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공연에 앞서 최 씨는 “코로나 19로 쉽지않은  
날들인데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  
다”며 “공연에 참여하는 가수들은 제가 정말 좋  
아하는 친구들인데, 제 고향인 광주를 보여주  
고 싶어서 이렇게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는 최씨와 우정을 나눴은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청했다.

오는 10월7일에는 백순진이 무대에 오르며,  
10월14일에는 오조가 광주를 찾는다. 또 장필  
순·조동희(10월21일), 김소연·이제니 시인  
(10월25일)의 무대도 펼쳐진다. 앞서 지난 8  
월에는 김사월, 선우정아  
등이 관객과 만났다.

최 씨는 지  
난 7월 인  
스타 그

광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11월까지 호랑가시나무 언덕 공연  
장필순·요조·김소연 시인 등 무대

램(SNS)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공동작사 프  
로젝트를 진행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  
반시민들이 함께 작사 한 노래 ‘우정의 정원’  
으로 이번 행사의 주제곡으로 정했고, 행사 제  
목도 곡의 이름을 붙여 지었다.

‘커밍홈(Coming Home)’은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 1년에 1시  
즌 동안 공연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음악 프로  
젝트다. 지난해 7월에는 ‘고향’이라는 콘셉트  
로 광주에서 공연과 전시(정주 선생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진행했다. 올해 8-11월에는 ‘우  
정’라는 콘셉트로 1-2주 간격으로 수요일마다  
두번째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최 씨는 “음악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입장에서 내 생각  
을 소신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향’과 ‘우정’에  
대해 내 주변 예술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  
급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  
했다.

“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  
나, 사전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요. ‘우정’은 꼭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 안에  
는 질투, 배신, 행복 등 다양한 모습이 들어있  
죠. 형용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  
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김  
소연 시인의 ‘사랑에  
는 사람이 없다’를  
보면 ‘사랑’을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 ‘사랑함’으로 표현했어  
요. 이걸 보고 저도 ‘우정스러움’에 대해 이야  
기하는 공연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매회 공연마다 친구에 대한 노래, 시 등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나눌 생각이  
다. 특히 공연에 참여하는 가수들에게는 그가  
경험했던 광주의 로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즐거거는 장소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첫 공연에 참여한 가수 김사월과는 보리굴비  
맛집을 찾았다. 두 번째 공연이 끝나고는 이은  
철·곽푸른하늘·이일두와 함께 양림동  
을 산책하고, 사진전망대에 올라갔다  
가 옛 도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친구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 정  
서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는 사람이  
고, 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존  
재가 아닐까 싶어요. 기꺼이 공연에  
참여해 준 친구들에게 나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소개했더니 그들도 색다  
른 경험이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공  
연을 준비하면서 캐스팅이 제일 쉬웠  
어요. 주변 가수들에게 ‘1박2일 광주  
여행길’에 광주스러움 느끼게 해줄  
게라며 공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  
죠. 다들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줘서  
고마웠어요.”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됐던 무대는  
오는 23일 재개한다. 싱어송라이터  
정우와 비동이 출연하며 이번 프로젝  
트의 마지막 무대는 최고은밴드가 오  
웬기념곡에서 장식한다. ‘친구, 우정  
의 정원’으로 입장권은 네이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공연은 유튜브를 통  
해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최 씨는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뮤지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우정’  
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올해 ‘우정의  
정원’으로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다른 키  
워드를 가지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는은은 2010년 첫 EP ‘36.5° C’로 데뷔  
한 최고은은 2011년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커밍홈 vol.2 친구  
우정의  
정원으로



장필순



김소연 시인

## 세월의 흔적에 미래 메시지 담다

광주신세계갤러리, 10월 6일까지 이매리 ‘시 배달’ 전

이매리 작가의 텃밭은 강진군 성전면 월남  
리다. 유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곳  
은 천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고찰 ‘월남사’가  
소실된 자리에 형성됐던 마을로 사할 터 발굴  
조사가 이뤄진 공간이기도 하다.

발굴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작가는 월남사지  
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왔다. 시간의 축적  
을 기억하고, 문명의 이면을 탐구하는 발굴의  
현장은 그에게 생생하고 소멸,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고  
의 폭을 확장시켜준 소재였고, 그의 작품에 고  
스란히 반영됐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역사 문명의 흔적을 통  
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매리의 ‘시 배  
달 Poetry Delivery’ 전 을 오는 10월 6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는 2015년부터 작업한 ‘시 배  
달’, ‘지층의 시간’, ‘캔토스의 공간’ 등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시리즈  
작품 30여점이 나온다.

작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위에 경전(經  
典)이나 시(時)의 내용을 금분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 간다.

‘시 배달’ 연작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  
고있는 발굴 현장의 지층처럼 쌓여진 삶의 역  
사를 한 층, 한 층 파헤쳐 탐색해 나가는 과정  
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잊혀졌던 과거의 흔  
적은 지상 위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금으  
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글자는 작품에 색다른  
이미지를 더한다. 그가 작품 속에 인용하는 시  
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서사시 중 일부로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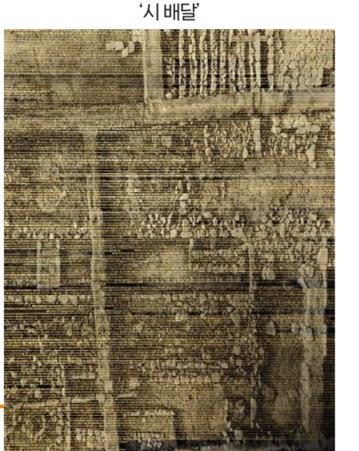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nd(그리고)’라는 단  
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삶  
의 연속을 나타낸다.

‘시 배달’ 연작의 영상 작품 속 등장 인물들  
은 각 나라의 민족시를 낭송한다. 강진과 광  
주, 뉴욕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은 비  
록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각국  
의 시 안에 스며있는 감정은 다양한 장소에서  
활영한 영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연스레 전달  
된다.

그밖에 ‘캔토스의 공간’은 신비한 공간감을  
선사하는 작품이며 ‘지층의 시간’ 연작 역시 삶  
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거쳐 조선대 대학원 미술  
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한 이 작가는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 배달’

## 이매리 작가 25일 ‘GB작가스튜디오탐방’

온라인 생중계, 패널 이택광 교수

이매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  
회가 마련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 GB작가스튜디오  
탐방 세 번째로 이매리 작가를 초대했다. 오는  
25일 오후 5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 작가의  
광주시 남구 방림동 작업실에서 온라인 생중계  
로 진행된다.

16년 전 ‘하이힐’이라는 오브제로 개인의 존  
재성과 실재성을 담아낸 이 작가는 몇 년 전  
부터 인류 역사에 투영된 지층으로 작업을 확  
장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스튜디오 탐방에는 이택광(사진) 경희  
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이 작가의 작품 세계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고고학과 인류학적 접  
근 아래 개인과 생애의  
문제를 인류 존재의 근  
원으로 추적해나가고 있  
는 이 작가는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  
레 특별전 Humanistic  
Nature and Society  
山水’전과 ‘2018광주비  
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행사 3일 전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작가스  
튜디오탐방’ 메뉴를 통해 이매리 작가의 리플  
릿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가에  
대한 질문(<https://url.kr/LJ7pt1>)은 24일  
까지 받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